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21. 12. 26. (다해) 제2301호

대구주보



1 1 2 0
1 1 4 Bernard - 상동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가을 오후
따뜻한 햇살이
상동성당에서 성전을
2021. 10월
비추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 행복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가정이라는 수도원



비산본당 주임 | 허인 베네딕도 신부

성탄절을 지내고 첫 주일, 교회는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의 붕괴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무덤덤하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느낀 대로 쓴 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시는 우리 가정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다섯 살, 네 살 된 연년생의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놀던 다섯 살 큰아들이 동생에게, “야~, 너희 아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다!’하고 인사해야 하는데... 뒤통수를 세계 한 방 얻어맞은 셈입니다. 장남이라고 좀 책임감도 강하게 키우겠다고 차별했다가, 그게 큰아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더 큰 기대를 했던 큰아들에게 ‘너희 아빠 왔다.’라는 소리만 들은 겁니다.

가정! 특별히 성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사랑으로 하

나 되어야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우였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불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남편은 드물다.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서로 존중하면서, 손과 발이 닳도록 일해서 먹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성인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의 엄격한 수도원인 셈이다.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이미 종신서원을 약속한 수도자들인 것이다. 가족이라는 수도원에서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수양하고 있다.”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올 한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필문**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 · 부제서품

일시: 2021.12.28(화) 14:00 /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 제



강 동 협(요셉)
이곡성당

12월 30일(목) 19:30



김 성 훈(루카)
복자성당

12월 29일(수) 19:30



김 세 호(바오로)
성토마스성당

12월 30일(목) 19:30



김 수 환(제준이나시오)
중리성당

12월 29일(수) 19:30



최 한 준(요셉)
범어성당

12월 28일(화) 19:30



이 동 재(토마스아퀴나스)
남산성당

12월 30일(목) 19:30



조 영 래(하상바오로)
형곡성당

12월 29일(수) 19:30



조 흥 범(가브리엘)
덕수성당

12월 29일(수) 19:30



황 보 근(미카엘)
동촌성당

12월 29일(수) 19:30



조 희 준(대건안드레아)
지곡성당

12월 30일(목) 20:00

부 제

서 찬 석 (젤마노)	성동성당	이 찬 규 (세례자요한)	신암성당
성 정 엽 (요셉)	하양성당	황 다 빈 (요한보스코)	진량성당
백 원 기 (루치아노)	내당성당	윤 현 민 (사도요한)	복자성당
장 준 영 (마카리오)	육수성당	-	-

※ 서품식은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오니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관계로 입장권이 없는 교우 분들은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제 부제 서품식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 대구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장 | 김광환 가길로

출근 시간부터 얼큰하게 취한 김씨 아저씨가 복지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관장님, 사람이 그리워 왔습니다. 말이 하고 싶어서요.” 혼자뿐인 집에서 불면증과 외로움으로 밤새워 뒤척이다 새벽녘 상가 어귀에 나가 동네 후배에게 술 한 잔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위험한 노동을 하다가 다친 후부터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날도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른 시간 사람 구경하러 밖에 나갔다가 인력시장에서 허탕 친 후배를 만난 것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하소연합니다. “아침부터 술판 벌이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삶을 향한 그들의 몸짓이 ‘감추고 싶은’, ‘좋지 않은’ 풍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에 대한 좌담회에서 함세웅 신부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크게 감동받았던 윤공희 대주교님의 고백’을 소개하셨습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때, 주교님은 군인들이 학생들을 짓밟고 때리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가슴에 모신 십자가를 응시하면서도 당신은 무서워서 못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어머니들이 군인들과 대항하면서 물도 갖다주시고, 학생들을 숨겨주는 것을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읽고 강론하며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었던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강도 맞은 사람을 두고 도망간 사제, 그 레위인이 바로 나왔구나’라고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새회칙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루카 복음 10장 36절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누구인가?’라기보다 ‘지금, 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을 지나치고 ‘특별한 이웃’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인지 되돌아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서고, 마음을 열어 자신을 표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자선 주일에 <밀알회> 회원이 되어주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밀알후원금은 교구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보와 소식지 등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구의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교구사회복지국장 최광경 비오 신부 -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심조이(沈召史) 바르바라는 인천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20세 무렵에 홍봉주 토마스과 결혼하였다. 1801년의 순교자 홍낙민(루카)은 그의 시조부였으며, 그녀와 같이 체포되어 순교한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그의 시아버지였다. 남편 토마스도 1866년에 순교하였다. 바르바라는 지능이 아주 낮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요한 교리 외에는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말할 수 없이 굳었으며, 자선심 또한 열렬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바르바라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 자기 집으로 피신해 오자 바르바라는 그들을 헌신적으로 거두어 주었다. 그녀는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는 눈치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심조이 바르바라는 시아버지를 비롯하여 함께 살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체포될 때나 문초를 받는 가운데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쁘고 체질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늘어놓은 형구를 볼 때나 관장들의 고함소리를 들을 때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

바르바라는 이후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한 뒤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고통을 참아 내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한 살이 된 막내아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천천히 죽어 가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마침내 전라 감사는 바르바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형벌로 인한 고통으로 이질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바르바라가 옥중에서 순교한 날은 1839년 11월 11일(음력 10월 6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26세였다. 그 뒤를 이어 그녀의 아들도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다. 이에 앞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그녀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조이 바르바라
(1813 ~ 1839년)

“심조이는 시아버지에게서 천주교 신앙을 배웠는데, 부부 사이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천주교를 올바른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이를 ‘영혼이 승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7년 동안이나 천주교의 가르침을 배워왔으니, 십자가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진실로 바꿀 수 없으며, 죽어도(천주교를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1년 가정 성화 주간(2021.12.26~2022.1.1)

사랑의 기쁨인 가정

2021년 가정 성화 주간 답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9. 혼인의 사랑 ㉔

부부 사랑의 증진

부부 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 주는 사랑이며, 이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
워지며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혼인은 소중한 표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성사를 거행하면,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반영됩니다.’ 혼인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배우자 두 사람을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 만드십니다.” 부부는
“혼인성사의 힘으로 참되고 고유한 사명을 부여 받아 삶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그리
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 120~121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외식을 자제하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0호 정답

1. 39, 40, 55, 56 2. (남)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 3. 거룩하시다, 거룩하시
다, 거룩하시다. 4. 메시아

지혜로운(?) 마음으로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7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2월 28일(화) 19:30 다사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2(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사수녀회

젊은이/성소자 개별 만남 및 상담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3박 4일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기간: 1.6(목)~9(일)

1.20(목)~23(일) / 3박 4일

지도: 문봉한 야고보 신부

참가비: 15만원(회차별 선착순 9명)

문의: (054)373-3955

(010)5878-9922

성바로말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일시: 1.7(금) 15:00~9(일) 15:00

장소: 성바로말수도회 사도의모후집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 있는 33세

이하 미혼 여성 / 피정비: 3만원

신청: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을 한해도 대구주보와 함께해 주신 교형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마스크(의약외품)

KF94(일 반)	100장 30,000원
KF94(세부리 환색)	100장 35,000원
KF94(세부리 칼라)	100장 40,000원
비말AD(환색)	100장 10,000원
비말AD(칼라)	100장 12,000원

대표 장 종 화(분도)

분도상사 010-3537-5559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바른동물의료센터

- ▶ 365일 24시간 진료
- ▶ 대학병원 식/박사 원장 진료
-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 주차 10대이상 완비
-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 정형외과
- 심장내과
- 강장질환
- 고양이특화
-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성구 관음동 290-5 (이마트 강성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외로결석(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 본당 구독 :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 우편 구독 :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 구독 문의 : 053)250-3158, 252-539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병선(요한) 신부
1987년 12월 27일

행사 | 모임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레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2.30(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동계 사제 성소 피정

고1: 1.12(수), 교구청 성소국
고2: 1.13(목), 교구청 성소국
고3·대학·일반: 1.19(수)~21(금),
한티 피정의 집
(참가 학년은 2022학년도 기준)

교육 | 모집

2022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20(월)~30(목)
모집: 850-3582(일반), 660-5252(특수)
특수: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주1회 출석)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2.20~30 / 남산동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남대영기념관 수지애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피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1.8(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3박 4일 꾸르실료 일정

여성 제262차 1.6(목)~9(일)
남성 제272차 2.10(목)~13(일)
대상: 백신접종 완료자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문의: 254-4671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2월 중순~5월말 10:00~17:30
매주 화,목,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19:30)
신약(수 10:00/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심화반: 시편(월 10:00/19:30)

문의: (010)8750-6573 / (010)3475-343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12월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년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30(목)~1.12(수)
입학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예수회센터 겨울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 영성적 접근,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성경 아카데미: 잠언~집회서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손상, 평발 깔창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왕곡네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덕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